



◆ 독일 KfW, 우간다의 상·하수도 사업에 330만 유로 제공

독일 부흥금융금고(KfW)는 연방경제협력부(BMZ)를 대행하여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市의 상·하수도 사업 지원을 위해 330만 유로의 자금을 제공키로 하고 우간다 재무성, 우간다 국영 수도회사와 자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우간다 정부가 독점 운영해오던 상·하수도 사업을 2002년 1/4분기중 민간기업이 인수·운영함으로써 식수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수도 사업의 운영에서 창출되는 재원은 시설 개선사업에 재투자되어 장기적으로는 상수도 공급량을 더욱 늘리고 시설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건은 양국간 경제협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간다의 다른 도시에서도 민간 부문에 의한 상·하수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범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黃秀泳】